

제목: "부활을 믿는 성도의 놀라운 능력"

말씀: 요한복음 21장 15-20절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삶에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지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의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1. 주님을 중심으로 _____하게 하셨습니다.
2. _____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3. _____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부활절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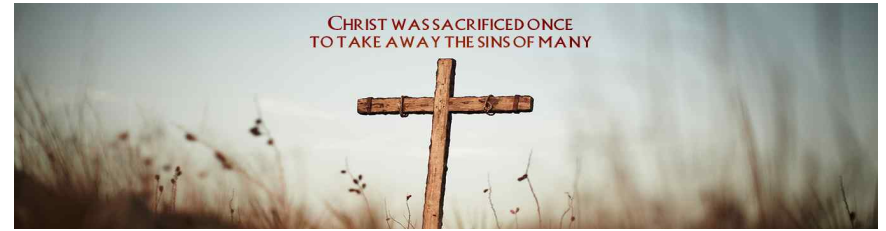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부활주일 예배 Palm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요한복음 21장 15-20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21: 15-20 신약 185 페이지 Presider
- 말씀 "부활을 믿는 성도의 놀라운 능력"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160장) 무덤에 머물러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언덕이 없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지나가야 하는 다리가 있다.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 경계에 있는 오래된 다리(Bridge)다. 늘 자동차들이 붐비는 다리로 유명하다. 동부의 유명한 다리로는 95번이 있다. 그와 같이 서부에 제일 긴 고속도로가 5번인데 그 길에 있는 다리이다. 그러다가 보니 늘 자동차들이 많다. 사고가 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널 때면 조심한다.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옆 자동차를 보면서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리가 보통 때 빠른 속도로 갈 때에는 몰랐는데 눈이 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많아서 밀려 속도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경사가 많이 저있는 다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속도를 많이 내고 갈 때에는 별 느낌이 없는데 속도를 늦추고 가다가 보면 다리에 굴곡도 많고 경사가 보통이 아니다. 만일 그 다리를 걸어서 건넌다고 한다면 아마도 중간에 고개를 두 번은 넘어야 하는 숨이 차고도 남을 다리라는 것이다. 한번은 눈이 와서 모든 자동차들이 어렵게 건널 때에 더욱 그 경사를 느끼게 되었다.

왜 몰랐을까? 그것은 이전에 워싱턴 언덕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했고 또한 옆에 있는 아름다운 강의 광경이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달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개와 언덕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유독 몇 번의 어려운 고개만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외에도 많은 인생의 언덕들이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고개와 언덕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된다. 어려울 때에 즐거운 찬송을 듣게 하시던지 아니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마음을 빼앗겨 어려움의 언덕이 어려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어려움의 고개가 없었던 것을 결코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지나갔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고개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많다. 그래서 그 은혜로 모든 힘든 생각을 잊고 넘어간 때였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던 것이 분명하다. 내 힘으로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때를 따라서 지나가는 고난의 시간들이 그냥 또 다른 고개를 지나가는 것과 같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에 불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데도다” (시편 34-18-19절)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언덕들이 나를 고난으로 묶어두지 못하게 하신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매일 잔치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언덕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뜬히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4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2/3월 행사

부활주일	오늘	예배 시
목자훈련	4월 16일 주일 친교 후	예배실
4월 목장 모임	4월 23일 주간	각 모임 장소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